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과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산소공장건설을 위해 당에서 직접 파견한 건설자들이 제정된 기일보다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날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결과 벌써 공장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산소공장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부문에서 리용하는 의료용산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산소와는 달리 높은 위생안전성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의료용산소를 팡팡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주자면 보건산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도 의료용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자면 지금 건설하고있는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지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산

소공장건설은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최근년간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제도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도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보건산소공장건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공화국창건기념일인 9월 9일까지 공장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시며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체육건설사상과 의도에 맞게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부문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중요한 초소에 서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종업원들의 로동과 생활에 편리하게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게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체육기자재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대성산》상표를 가진 공장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고 원료, 자

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경영전략을 잘 세워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큰일을 해놓았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적인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우리가 만든 질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전문체육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체육기자재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들어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구석구석 훑잡을데가 없이 정말 잘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룡구림과 중국올림픽 남자룡구림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룡구림과 중국올림픽 남자룡구림간의 친선경기를 관람하시었다.

친선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

룡구림이 중국올림픽남자룡구림을 82:73으로 이겼다.

앞서 진행된 두차례의 친선경기에서도 우리 나라 소백수남자룡구림이 중국올림픽남자룡구림을 81:70, 65:56으로 이

겼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체육인들이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안고 멋들어진 경기동작들로 훌륭한 경기를 펼쳐보인데 대하여 커다란 만

족을 표시하시었다.

관람자들도 높은 기술과 고상한 경기 도덕품성을 보여준 두 나라 체육인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본사기자

최근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200일전투의 봉화가 타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대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별 전략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이 전략수행기간에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려

하고있다. 목표는 높고 아름답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자강력의 기치밑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한다. 하기에 열마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를 선포하였던것

이다. 200일전투의 선포, 여기에는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으로 서막을 연 뜻깊은 이해를 강성국가건설에서의 전례없는 기적적 성과로 빛내이려는 담대한 기상이 어려웠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으로 달려 세계를 따라앞서고 이 땅우에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자신만만한 결심과 용지가 비껴있으며 령도자

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위대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한없는 믿음이 깃들여있었다. 령도의 온갖 성과를 헤치며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온 공화국의 령도는 바로 이런 담대한 기상과 배짱,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으로 승리해온 궁지로운 나날들이었다. 지난 총정의 70일전투에서도

은 나라 인민은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고 자강력의 기치높이 만리마의 기상으로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전례없는 비약적성과를 이룩하고 승리자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더욱 뜻깊게 빛내이였다. 어제와 오늘도 매일도 공화국인민들의 앞길에는 승리의 밝은 표대가 빛을 뿌리고 있으며 전민의 애국의 열의는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고 자강력의 제일보검을 들어 쾨 공화국의 인민들에게는 두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기세는 하늘에 닿고있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영웅적인 대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 문학예술단체, 교육 및 보건기관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더 높은 생산성과와 로력적위훈으로 2016년을 빛나게 장식해갈 드높은 결의밑에 대진군의 속도를 높이고있다.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된 려명거리건설장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어 살림집들이 웅장한 툇박을 드러내고 머지않아 희한한 새 거리가 펼쳐지리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가슴 설레이게 하고있다.

200일전투의 승리적결속,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며 더 높이 비약할 공화국의 매일, 그것은 머지않아 눈앞의 빛나는 현실로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강토가 갈라지고 혈육이 갈라져 70여년이라는 분렬의 아픔을 겪고있는 조선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민족사적숙원이며 통일의 대업을 이루자면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운명개척의 중요한 담보이며 민족의 대단결이 없이는 민족의 밝은 미래와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단결이 민족의 운명에서 것처럼 중요하고 사활적인것으로 되기에 단결에 대한 격언도 수다하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 바위도 힘을 합치면 뿔뿔히, 단결하면 백번 승리하고 흠어지면 백번 실패하게 된다. 민족의 단결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운명과 전망에서 것처럼 귀중한것이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침에는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치고 단결되어야만이 조국의 통일을 이룰수 있고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도 일떠세울수 있다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자주위업을 개척한 려사의 행로에는 민족의 대단합실현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이 새겨져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전의 그날에 조국의 해방은 오직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룰수 있다는 경륜을 내놓으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었다. 주석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민족대단결사상을 천명하시어 항일성전에는 온겨레를 불러일으켜 묶어세우시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시였다. 해방후에는 힘있는 사랑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자고 호소하시어 새 조국건설에로 온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의 발기와 지도밑에 북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한 1948년 4월의 남북련석회의는 나라와 민족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단합시킨 려사적인 회합이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단합의 대헌장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어 온겨레를 조국통일실현에 힘차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주체78(1989)년 4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우리는 조국통일의 려사적위업도 민족의 대단결로 성취하여야 한다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라고 하시였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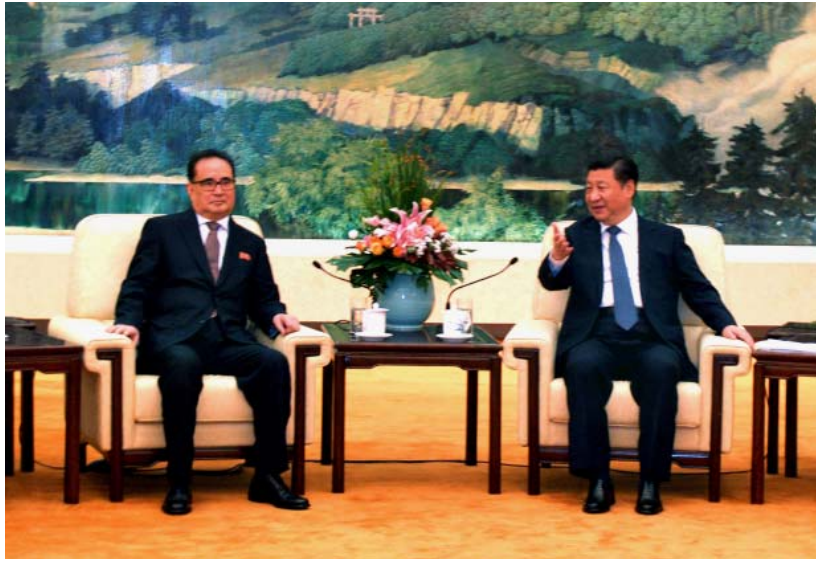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북과 남, 해외 전민족을 통일위업실현에 이끄는 장군님의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00년 6월 려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인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 경이로운 사변을 두고 온겨레는 《6.15공동선언은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이 낳은 려사의 기념비》라고 환희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확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의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며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족의 분렬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천하제일대본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경륜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단합과 통일성업실현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선민족은 단결의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광풍을 짓부시고 기어오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 교야말것이다. 리 동연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났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1일 인민대회장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와 구두친서를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인 리수용 부위원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습근평 총서기 기는 김정은위원장님께서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인사와 구두친서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리수용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수반이시며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이라고 선언한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해온 사회주

의건설의 총로선, 자주로선, 선군혁명로선, 주체적통일로선, 새로운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당대회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는 전략적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령도하여 《중국 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고 말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중국방문은 중조 두 당사이에 전략적의사소통을 진행하는 훌륭한 전통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중친선을 수호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방침은 불변하다고 하면서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품들어 키워주신 중조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발전시킴으로써 중조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중친과 함께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위원장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식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불변의 진리, 승리의 길 (3) 인민의 리상과 그 현실

무릇 아이들의 얼굴에는 국가의 정치나 사회상이 비친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속마음을 꾸밈없이 내비치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서는 얼마나 맑은 어린이들이 우울과 절망이 비끼고 구원과 보호를 바라는 표정으로 인류의 량심에 애절한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인가. 더우기 고아들의 운명만큼 쓸쓸하고 눈물겨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한점 구김살없이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고 있다. 주체103(2014)년 6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었다. 국제 아동절에 그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두팔을 벌리며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에게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잡아주기도 하시고 품속을 파고 드는 원아들의 불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며 오늘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 것을 먹었느냐 물으시며 아이들의 생활을 다정히 헤아려보시었다.

이윽고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그이께서는 저녁밥을 먹는 아이들을 사려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숟가락이 어느 음식에 먼저 가는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가를 헤아리기도 하시고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시고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잘 먹었구만, 원아들이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당에서 보내준 여러 가지 음식감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이든가도 알아보시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

법도 알려주시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체력단련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아이들을 털끝만 한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무력 무력 자라게 하자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그이께서 애육원을 다녀가신 후였다. 뜻밖에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료리사들이 애육원에 도착하였다. 자신께서 보내신 편을 잘 가공하여 아이들에게 먹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그 이튿날 점심시간에 원아들을 위한 특별 연회가 펼쳐지게 되었다.

어느 한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기를 품어주는 따스한 요람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요람가에 떠도는 훈훈한 온기라고 쓴 적이 있다.

따뜻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도 넘지 못할 한계가 있고 웅심깊은 아버지의 사랑도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숭고하고 뜨거운 아버지 사랑이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 싶어하시고 열을 주면 백을 주고 싶어하시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는 온 나라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나라의 주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회가 전하는 이야기

본사기자 김강철



재미있는 그림책들에 심취되어있는 원아들 — 원산애육원에서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 지배와 예속이 없고 서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리상향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신봉적 차별과 착취가 없는 혁명적인 룰도국을 찾아가는 홍길동을 형상한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 《홍길동전》에 반영된 리상적인 세상에 대한 갈망이나 반월의 하얀 쪽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등대가 비쳐주는 구름나라, 서쪽나라를 찾아가는 주인공을 형상한 《반월가》에 담긴 소박한 꿈처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소원한 것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다. 플라톤의 《철인왕국》,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루소의 《리상국가론》에 담은 꿈도 다 만민평등의 복지사회에 대한 갈망이었다.

인간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리념이 그대로 현실로 구현된 리상사회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이다. 이민주권을 평생의 지론으로, 정치의 초석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사상과 평도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지지를 받으면 백번 다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백번 다 패한다는 것을 한생의 지론으로 삼으시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언제나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이것이 인간에 의한 인간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이며 조국도 혁명도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인민대중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혁명과 건설의 절대적 기준이

며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이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3대 분적차별과 착취가 없는 혁명적 룰도국을 찾아가는 홍길동을 형상한 우리 나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내놓으신 것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주체농법도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의사와 경험을 집대성하여 내놓으신 것이다. 사회주의는 문자 그대로 인민의 세상, 인민을 위한 사회제도가기에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국호도 군대 이름도 국가적재부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시켜 부르도록 하시었다.

현지도의 길에서 차창에 비껴오는 협동전야를 바라보시면서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어대가서 이런 희한한 풍경을 볼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는 이렇게 인민의 마음속에 역세계 뿌리박고 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의 락원을 펼쳐고 있다고 하신 장군님의 교시에는 사회주의문화봉선과 사회주의농업근로자를 낳은 사회주의 생리와 본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이께서 교시하신 것 처럼 한여름날 개경남도 함주군 동봉땅만 보아도 백학 무리가 날아와 깃을 편 것파도 같이 준비하게 늘어난 아담한 주택들과 푸른 주단같은 논밭들,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난 감자밭들은 진짜 불만 한 사회주의 풍경이다.

이것이 인간에 의한 인간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이며 조국도 혁명도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인민대중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혁명과 건설의 절대적 기준이

중적이며 인민적인 향유물들이다. 사회주의의 인민적 정책과 혜택속에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향유하도록 하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건설되어 인민을 위한 재부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는 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의 높이고 깊이가 있다.

두조선의 평양에 체류하면서 조전현 실상을 체험한 미국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조선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푹푹히 알게 되었다. 조선처럼 사회주의 사상에 충실한 나라는 없다. 사람들이 행복하며 애국주의적이고 정도자의 두리에 굳게 단합되어 있다. 조선은 사회주의 길로 나가는 가장 훌륭한 나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튼튼하며 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버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히시었다.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 현명한 평도와 선민의 열화 같은 애국충정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되는 정치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인 사회주의 강국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1968년 5월 평양에서는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수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뵈기까지 모시고 주석단에 앉게 된 진웅원의 영광은 비길데 없었다.

보고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웅원을 불러주시었다.

은 대회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난 진웅원은 몸돌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진웅원을 미더웁게 바라보시다가 그를 가리키시며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이 동무가 진웅원동무라고, 내가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자 이 동무가 첫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든 동무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대회장은 떠나갈 듯 한 박수소리와 감격의 파도로 끓어번졌다.

진웅원은 목이 짝 메였다.

그 순간 그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잊을수 없는 나날이 뜨겁게 돌이켜졌다.

8.15전 남조선에서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죽

위대한 인민의 모습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지 못해 살아오던 그는 조국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의 반인민적시책으로 말미암아 사람대접을 못받고 막벌이군으로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의용군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가 강선제강소(당시)에서 자기의 정열을 깡그리 다 바쳐 나라의 강철생산을 높이려고 애쓰던 때인 1956년 12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으시려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었다.

추운 겨울 휘넓은 방안에 도람통으로 된 난로를 들여다놓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자 신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몸돌바를 모르는데 수령님께서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5년동안이나 산에서 우등불을 피워놓고 회의를 하던

사람인데 집안에다 도람통으로 만든 난로를 들여다놓고 불까지 피워놓았으면 팬장을 수 준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주인 로동자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나라안팎의 정세를 로동자들에게 알려주시고나서 혁명과 건설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가는 데서 우리 당은 오직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있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웅원은 소리없는 울음을 울고있었다.

당시 시련을 겪고있을 때 강선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옹호보위하는 근위대의 대오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랴. 그 사랑에 우리가 무

엇을 못해내랴.

진웅원의 심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새차게 고동치고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강직장의 내부에비탐구정형과 증산결의에 대해 물으시다가 주인이야 생산자들이지, 로동자들이 하겠다며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누구 로동자동무는 안왔는가고 하시었다.

이때 진웅원은 제일 남먼저 자리를 차고일어나 새 기술과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기여이 1만의 강재를 더 증산할 충정의 맹세를 다 지었다.

이날에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심장에 새긴 그는 강선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불철주야로 일하고 또 일하며 6만능력의 분과업연기에서 12만대의 강재를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59년 2월, 혁명발전의 새로운 환경

에 맞게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과 인간개조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강선을 찾으시어 강선로동계급의 심장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지퍼주시었다.

진웅원은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3호전기로 용해작업반 성원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락후분자를 선진분자로, 소극분자는 적극분자로 만들며 작업반본위주의와 교대본위주의의 울타리를 마르고 다같이 혁신하고 다같이 전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업반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집단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되는 천리마작업반창호를 진웅원용해작업반에 주도록 하시고 1960년 8월에 열린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수자대회에 진웅원을 불러주시어 그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5년 1월 강선땅에서 다시 한번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를 또다시 찾으시고 진웅원을 부르시어 그에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천리마의 대교조를 일으켜야겠다고 뜨거운 믿음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에 고무되어 진웅원은 비롯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또다시 천리마대교조의 봉화를 지퍼올렸으며 강철생산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나가는 로동계급의 기수가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그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햇빛같은 사랑은 남조선에서 태어나 막벌이군으로 버림받은 인생을 온 나라가 다 아는 로동계급의 전형,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로 키운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민족통일대강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하여 사회단체 책임일군들이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과학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500만 청년들의 이름으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였다.

그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에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라고 하면서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략을 높이 받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이 세상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우리의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민족통일대강으로 환영하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총매진해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공화국북반부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겨레의 통일운동을 선도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해온 좋은 전례와 경험을 살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력사적인 보고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

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칠 때 우리 민족은 능히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경제인들은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승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시어 조국통일운동의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각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과업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통일의 선도가 되고 나팔수가 되어 온 겨레를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과업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이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시대의 선각자, 통일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김정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 불멸의 고무적기치로 받아안고 이를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마음을 담아 열렬히 지지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북과 남의 녀성들은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이룩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감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정한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교로운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강지영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카톨릭교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지적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뜨거운 민족애가 구절마다 맥동치는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카톨릭교단체들과 카톨릭교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호소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략들을 전체 조선민족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통일

대강으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를 기어이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의 농민들이 서로 손잡고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통일강령을 받들어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마음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여기에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그는 민족성원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우리 문예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문예인들은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 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혀 주신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로선,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민족내부문제는 절대로 남의 힘을 빌어 해결할수 없다.

외세는 우리 겨레에게 분렬의 비극을 들씌운 장본인이며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

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조국통일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의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자주적운명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으며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조국통일위업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한 좋은 전례들을 가지고있으며 지나온 6.15자주통일시대의 북남관계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가 분렬되어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핵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수 없게 할뿐만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합화를 벗어내게 할수 있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

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민족의 생존투쟁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인것이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북과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만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길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남합의들의 력적관계개선이 있다

최근 공화국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천명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문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것이다.

북남대결상태의 해소여부는 전적으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은 이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통하여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해결해나갈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은 온 겨레의 의사와 드높은 통일열망을 반영하여 북과 남이 합의하고 채택한것으로써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그것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무밖에 없다.

북과 남이 온 민족과 세계앞에 력사적인 합의들이 계속

리행되었다면 의심할바없이 북남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며 온 겨레가 꿈결에도 바라던 조국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졌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극단적인 반통일대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과 남에 차남치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열기는 삼시에 사라지고 북남선인들의 리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합의들과 그에 의해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북남사이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들을 가져다버리고 버리었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악랄한 대결정책을 들고나와 6.15이후 북남사이에 줄기차게 이어온 대화와 협력, 래왕과 접촉,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모조리 가로막았을뿐아니라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한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책전쟁연습에 매달려왔다.

그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기초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히 위험천만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교훈은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가 한결같은 전진할수 없는것은 물론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것이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반통일세력의 룡락물로 될수 없으며 동족간의 대결상태는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북남합의들에 대한 무시는 곧 자주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한 거부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북남합의들을 인정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정경철



시 묶음

열어가자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겨레의 환희 민족이 안겨살 크나큰 집이어

김태룡

김윤식

우러러 삼가 우러러
가슴은 왜 이리도 격정에 젖는것입니까
통일의 대강 펼쳐
자자구구 하시는 뜻깊은 말씀에
저도 모르게 터지게 되는 매혹의 토로
아, 원수님!

뜨거운 민족에 조국으로 차넘치는
열렬한 그이의 호소
누구나 공감하는 통일의 진로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신 원수님
이 대강을 펼치시려
지새신 밤 기울인 심혈 얼마이십니까

통일을 위해 바치여오신
수령님들 한평생 다 더듬어보시며
수난도 폭절도 뼈아픈 시련도 많은
분렬의 장구한 력사 그 갈피 다 번져보시며
심중에 굶이친 애국의 역센 뜻
통일의 억척기둥으로 세우신 원수님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새해의 첫 아침
반통일의 도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새 시대 일어나가자고
신년사를 하시는 그 연단에서
그처럼 열렬히 호소하시던 그이의 모습

오늘 이렇게 뜻깊은 당대회
5월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어
우리 겨레 일어나가야 할 통일의 길
더 넓게 더 밝게 열어주시니
애국중의 애국이어서 그 말씀 가슴 울리고
뜻중의 참뜻이어서 송고함에 목매입니다

보십시오
심장의 정과 열을 다해
삼천리를 꿰게 하시는 그이의 통일경륜에
겨레의 환호 폭풍쳐 터져오릅니다
통일의 길로 향도하는 민족의 령도자
통일의 구성 김정원수님

그이의 통일경륜에 배심든든해지는 5월
력사의 5월에
은 세상을 향해 터치는 겨레의 환희여
통일강국의 새 아침
민족번영의 창창한 미래 당겨오실분
오, 그이는 원수님뿐이십니까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통일은 조국의 통일은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듣느냐, 겨레여
원수님의 절절한 이 호소를

통일은 련방제방식으로!
일일천추 통일을 고대하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가 다 담겨진 방안
일시에 삼천리강도에
아, 솟구치는 감격의 세찬 열과여

은 민족이 통일의 명안이라 환호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통일 국가의 그 휘황한 설계도 그려 주
시어
불멸의 공헌 이루신 수령님
감격에 겨워 우러르던 그날처럼
8천만이 원수님 우러르노라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진리로 남고

그 생명력의 빛발은 절대로 꺼지지 않거니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진정한 평화로 통일을 이루는 길
련방국가창립 이 길밖에 없어

대답해보라, 민족의 량심을 지닌 겨레여
바라는것 전쟁이던가 평화이던가
넘원하는것 분렬인가 통일인가
《제도통일》의 헛된 망상 쳐갈기며
나가자 련방국가창립의 길로

련방제통일의 길로 나아갈 때
삼천리 하늘 영원히 맑고 푸르리
수십년세월 애라게 갈망해온
통일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쁨이 되리

아, 수령님 한생 바라시였고
원수님 안아오실 련방통일국가 그 용자
환하게 어려오는 5월의 푸른 하늘이여
소중하게 불러보노라 련방국가
은 민족이 안겨살 크나큰 집이어!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김송림

심장에 애국애족의 피 끓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를 묻은 조선민족이라면
돌이켜보자 생각해보자
파국으로 치닫는
동족대결의 이 엄혹한 현실을

통란할 일 아니란 말이나
가슴터치는 울분 치솟지 않느냐
통일로 부풀던 희망 재처럼 싸늘히 식고
민족공동으로 이룬 소중한 전취물
그 하나하나가 말살당하는것이

물어보자, 민족내부 불신과 대결로
얻은것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겨레의 머리우에 들춰워진것은
전쟁의 먹장구름뿐
나날이 이 강토에 덧쌓이는것은
반목과 질시의 치욕스런 년륜뿐

이제 더는 참고만 있을수 없다
이대론 통일로 한결음도 나가지 못하기에

북과 남 남과 북
우리는 등지고 싸워야 할 원수가 아닌
함께 손잡고 서로 존중하여야 할 한겨레

하기에 민족의 제일중대사 통일을 위해
선의와 아량의 따뜻한 손길 내밀었거니
그 손길 잡는다면 통일의 동반자
끝끝내 그 손 뿌리치고 등 돌려댄다면
비참한 운명 면치 못하리라

말로만 통일, 애국을 떠들지 말자
은 겨레가 통일의 앞길에 무수히 박힌
대결과 적대의 가시를 뽑아내치자
화해와 단합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도
통일의 길에 놓아나가자

통란할 동족대결의 허무한 세월
그 세월 결단고 끝장내기는
북과 남 서로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니
력사의 중대기로 운명의 선택앞에
북과 남 우리 겨레가 서있다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김태룡

세기와 년대를 넘어
민족분렬의 력사는 어느덧 70여년
통일, 통일을 애라게 바라다
눈을 감고 떠난이 그 얼마며
머리에 백발을 인이 헤여보아 또 얼마나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분렬의 장벽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풍습으로
자자손손 이어온 민족의 넋
그 민족성마저 사라져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라

이렇게 아물길 없는 분렬의 상처를 안고
언제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쓰라림에
가슴 두드러 울분을 뿌려야 하는가
세대를 이어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분렬을 유산처럼 넘겨줘야
하는가

더이상 참을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민족의 이 고통 이 불행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원수님
그이 내놓으신 통일로선 그것은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통일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심장마다에 불을 달라 8천만이며
애국애족의 진정 넘치는 그이의 뜻
심장의 끓는 피로 받들어나서라
누구나 질풍노도치는 겨레의 힘찬 진군
가로막아나서는자
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리

원수님 밝혀주신 통일의 대강
그 대강 받들어나가면
겨레는 가닿게 되리라 통일의 종착점에
그 뜻을 끝끝내 거스른다면
항시적인 분렬 전쟁의 불구름
헤어나올수 없는 자멸뿐

누구도 통일의 그날로 질주해가는
통일의 거센 흐름 지켜만보는
방청석에 앉아있을 권리가 없거니
분렬의 장벽 산산이 부서버리며
겨레여, 조국통일의 대통로 일어나가자

오, 김정은원수님 진두에 서계시는
통일대행진의 기상은 하늘을 찌른다
신심드높이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통일의 그날이 우리 겨레를 부른다
통일은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대에!

높이 들자 민족자주의 기치

김영일

흘러온 70여년
장구한 분렬사를 돌이켜보노라면
그 력사가 깨우치는 준철한 교훈 있다
민족운명개척의 길은
오직 하나 민족자주에 있다!

분렬의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라, 민족의 통일
우리 자신처럼 피타게 원했던 외세 있었는
가를
피를 나누는 겨레가 아닌 그 누가
이 땅의 분렬을 두고 가슴쳐본적 있는가들

바라지 않는다 외세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통일을 이루어 강대한 민족이 되는것을
그런 외세에 구결하며 공조하는것
그것은 매국배족행위 반통일죄악
힘이 약해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했던
우린 어제날의 약소민족 아니거니
조국통일도 운명개척도 자기 힘으로 이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민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그렇다! 통일은
그 어느 외세의 승인이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온 민족의 뜻과 의지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사생결단으로
기어이 이루어야 할 민족사적대업이거니

세우지 못하랴 자주의 기치들어 일떠선다면
삼천리 이 강토에 통일조국을
사대와 외세의존 그 치욕 털어버리고
높이 추켜들자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자주—여기에 통일이 있다

단결은 통일의 천하지대본

리송일

한방울 물에도 크나한 우주가 비끼듯
한마디 이 말씀에 다 어려있어라
조국통일의 거대한 뜻이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입니다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원수님 밝혀주신 이 금언
겨레여, 가야 할 통일의 길우에서
심장 깊은 곳에 퍼처럼 새겨안자

우리 민족에겐 있거니
나라의 독립 통일을 위한
머나먼 령정에서 값높이 이루어낸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이
그 경륜, 그 전통의 력사적뿌리우에
우리 어찌 민족대단결의 거목 세우지 못하랴

반통일의 길 걸었던 사람도
늦게나마 민족을 위한 참된 길 걸으라고
주저없이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정견과 신앙을 넘어 통일의 길 가자고

뜨겁게 안아준 포옹의 품
아, 그것이 민족대단결의 참뜻!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넘어
북과 남 우린 한피줄 나누는 하나의 겨레
계급과 계층 서로 다르고
분렬된 땅에 갈라져 살아도
달리는 부를수 없는 우린 한형제 한식솔

한가정의 식솔 마음은 하나이듯이
하나의 겨레 하나의 민족 북과 남 해외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
민족의 숙원 통일이라면
통일의 천하지대본은 민족대단결!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 영원히 끝장내고
겨레여, 하나로 억세게 뭉치자
원수님 추켜드신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그날
민족번영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애국애족적호소에 역행하는 무모한 대결광기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분렬의 비운을 하루빨리 걷어내고 삼천리강토에 통일과 번영의 지평을 열어나 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지향이다.

더이상 용납할수 없는 분렬의 가슴아픈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조국을 안아오려는 숭고한 사명과 일념에서 우리 천만군민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북남군사당국회담개최도 제안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절절히 호소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있는 조치들은 애국애족의 진정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절절한 숙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내민 선의와 아량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첫 대답은 《선비핵화, 후 대화》요, 《진정성있는 선전공세》요 하는 억지주장과 악의에 찬 정치적도발이였으며 실제적인 첫 대응은 군부강패들을 동원한 무분별한 선불질이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당국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나갈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수치스러운 대미추종과 악의적인 동족대결소동으로 응수해나서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제안에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과 광란적인 악설로 도전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

가는 뻘에 오는 흉두꺼적인 남조선당국의 무지무도한 망동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조치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더욱더 무분별해지는 남조선당국의 대결광기로 나라의 정세가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립장을 밝힌다.

1.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제의에 담긴 깊은 뜻을 똑바로 새겨보고 책임적인 선택을 할 대신 계속 분렬을 잃고 행동한다면 남조선당국에 가해지는 우리의 대응은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 깊이 몰아넣고 더 빨리 자멸하게 만드는 초강경적인 공세로 될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진 불미스러운 모든것을 덮어두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의 손길을 내민것은 오늘의 험악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민족적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것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제재》에 파구를 내기 위한 우리의 전략으로, 지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나약자의 술수》로 생각한다면 것처럼 무지한 오관은 없을것이다.

우리를 막강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르게 한 미국까지도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체념하고 승산없다고 보는 《선 비핵화, 후 대화》라는 《전제조건》을 내들고있는 어리석은 처사는 조미간에 해결할 문제에 중뿔나게 끼여들어 풀수없이 놀아대는 참견질로서 가소로움밖에 자아낼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통일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일념에서 남조선당국에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길을 잡는다면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동반자가 될수 있지만 끝끝내 뿌리치고 등을 돌려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우리는 이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상기시킨다.

2.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무모한 군사적망동으로 거부해나선다면 남조선당국에 가해지는 우리의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선력으로 될것이다.

우리가 북남군사당국회담개최를 제의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해나갈것을 제안한것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수역을 비롯한 첨예한 대치계선들에서 군사적충돌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정세안정을 도모하며 북남관계개선의 평화적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을 베라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로, 더우기는 《위장평화공세》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다못해 선불질까지 해대며 군사적망동을 부리는것이 미련한 남조선당국이다.

요즘에는 또다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준비까지 떠들어대며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다.

우리는 열간망둥이들의 무모한 군사적광기가 어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에 관심이 없이 오로지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자들과는 힘의 결산밖에 남을것이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적방법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순간에 모든 악의 근원을 통채로 날려보낼 비평화적방법에도 준비되어있다는데 대해 숨김없이 천명하였다.

비평화적방법에 의한 물리적대응은 우리에게는 통일대전의 패승을, 남조선당국에는 참혹한 패배를 가져다주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우리를 비방증상하는 도발적악설들을 쉬임없이 내뿜는다면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로 락인된채 참혹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지금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놓고 전략적사고와 맹렬한 판단에 기초하여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현 파국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눈앞에 펼쳐진 기회도 보지 못한채 대세의 추이도 분별 못하는 청맹파리가 되어 동족을 증상모독하는 악설만 실새없이 내뿜고있다.

그가 《대통령》이건 《장, 차관》이건 큰것 작은것 가림없이 입만 열면 《변화》니 뭐니 하고 지못게 교아대고 집안에 있던 밖에 나가 건 그리고 상대가 그 누구이건 개의치 않고 동족을 반대하는 《공조》의 목소리를 높이며 돌아치고있는것이 남조선집권패당의 오늘의 역겨운 추태이다.

지어 인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남조선당국은 심각한 경제파탄과 민생악화로 아우성치는 제 집안팎은 내팽개치고 《어려움》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가리워보려고 갖은 모략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민심에 역행하고 동족을 해치는 일만 골라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행위를 《피력한 성질》과 《지독한 불통》, 동족에 대한 《변태적거부감》이 짙들어온 정신적착란증세로 저주하고 있겠는가.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오늘 변해야 할것은 바로 북이 아니라 《유신시대》의 대결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이며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추물들이 청와대의 《몰지각한 주인들》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한번 벨은 악설은 주어 담을수도 없으며 그 악설을 내뿜은 혀가 자기의 목을 베는 비수가 된다고 한 우리의 의미있는 충고와 엄중한 경고를 다시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불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광기로 기승을 부릴수록 시대와 력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제 105(2016)년 6월 2일 평 양

선택을 바로해야 한다

공화국이 남조선당국에 다시금 경고하였다.

북에서 울린 통일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통일의 동반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무모한 대결광기를 계속 부리며 역행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겠는가.

중대한 기점에서 그야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물음이다.

앞서 공화국은 통일의 미래를 결정할 오늘의 한결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략적사고와 맹렬한 판단에 기초하여 과거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국에 루차 선의와 아량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었다. 더 이상 용납할수 없는 분렬의 가슴아픈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조국을 안아오려는 숭고한 사명과 일념에서 함께 손잡고 통일의 동반자가 되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고, 민족의 제일중대사인 통일문제를 놓고 책임적이며 리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도,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에서도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어떻게 화답하였던가. 《선 비핵화, 후 대화》요, 《진정성있는 선전공세》요 하는 상

투적인 억지주장과 어리석은 처사였고 군부강패들을 동원한 무분별한 선불질이었다. 요즘에는 또다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준비까지 공개적으로 떠들어대며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다. 그 누구에 대한 《변화》라령도 지못게 울리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대북압박공조》를 주문하느라 남조선당국자의 입술이 부르틀 정도이다.

수치스러운 대미추종, 악의적인 동족대결소동, 대화상대방에 대한 광란적인 악설.

지금 이 시각까지도 거듭되고있는 이러한 무지무도한 망동이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조치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이번에 또다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하여 남조선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것이다.

계속 분렬을 잃고 행동한다면 남조선당국에 가해지는 공화국의 대응은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 깊이 몰아넣고 더 빨리 자멸하게 만드는 초강경적인 공세로 될것이라는것, 무모한 군사적망동에 대한 공화국의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으로 될것이라는것, 계속

도발적악설을 내뿜는다면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로 락인된채 참혹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 이와 같은 경고에 이제 남조선당국은 최종적인 립장을 밝히고 최종의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대결의 길을 계속 걷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애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분렬의 비극을 더는 허용할수 없기에, 민족의 세기적념원을 결단코 풀어야겠기에 애국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단호히 쓸어버릴 민족의 의지도 드높다. 남조선당국은 진정 통일의 동반자로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는가 아니면 회세의 애국노로 계속 남아 민족의 준엄한 버림을 받겠는가.

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력대로 애국노들에게 차려진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민족의 지향과 요구,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전쟁광기로 기승을 부리는자들은 시대와 력사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리성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련옥

가편한 아프리카의 아부투히 다차시집원행각

최근 박근혜는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행각을 벌여놓고 《북핵포기》니, 《변화의 길》이니 하는 케케묵은 대결북통을 또다시 두드려댔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들이 나가서도 샌다고 그가 해외에 나가면 늘 불어대는 대결나발이어서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 주제가 어떤 풀인지도 모르고 또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프리카에까지 날아가 동족대결망발을 늘어놓을 심신도 달래고 또 다 구겨어대는 대결나발이어서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지금 박근혜의 처지는 참으로 가군다.

지난 4.13 《총선》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고 주춤스러워진데다 그후에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내부갈등으로 향방없이 표류하고있다. 거기에서 최학의 망신살이 뻗친 19대 《국회》는 수많은 오명과 함께 막을 내렸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가로막는 집권자의 횡포에 민심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몇개 기관이 여론조사를 한데 의하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

지고 10대, 20대의 《지지률》은 10%도 되나마나하다고 한다.

그런 속에 집권자가 침묵은 지네처럼 비실거리며 아프리카로 날아가게 된것은 위기때마다 써먹는 상투적 수법인 해외탈출로 풀명든 심신도 달래고 또 다 구겨어대는 대결나발이어서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외에 나가 청승맞게 한다는 소리가 《북핵》과 같은 판에 박은 대결악담을 연발하며 《압박공조》를 구걸한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까지도 박근혜의 아프리카행각에 대해 《경제를 주고 북압박을 받았다》고 비꼬는 형편이다.

온 겨레의 지향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이고 세계가 바라는것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선비핵화》니, 《진정성》이니 윈새끼를 꼬며 동족의 통 큰 제안은 외면하고 한사코 동족대결을 부르짖으며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공화국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며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주도해나가는 전략적지위를 강화해

나가리라하는것은 세계가 인정하는것이다.

민족의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강의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다져가는 공화국은 박근혜의 요설같은것은 달보고 짚어대는 개소리밖에 여기지 않는다.

박근혜는 자기를 알아야 하고 민심의 지향과 대세를 볼줄 아는 눈부터 가져야 한다.

남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 줄도 모르고 아프리카에까지 날아가 《압박공조》를 구걸해왔던자 그것은 도량막고 고래를 잡아보겠다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살림살이 할줄 모르는 아나네 동남자루 들고 나선다고 집안문제도 해결 못하는 박근혜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오락가락하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를 구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고 망상이다.

정세추이도, 시대흐름도 판별할줄 모르는 무능, 무지로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세치 혀바닥을 나불거리다가는 겨레의 규탄과 세계의 웃음거리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또다시 감행된 괴뢰패당의 치떨리는 유인 랍치만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식당종업원 3명이 《탈북》하였다니, 그 무슨 《제재효과》니 뭐니 하는 또 하나의 상투적이며 광란적인 반공화국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감행한 집단 유인랍치사건을 저들이 나서서 서 뿔리 떠들어댔다가 곤욕을 치른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은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인들의 《자유 의사》라는것을 애써 부각시켜보려는 알뜰한 술수가 깔려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광대놀음은 괴뢰보락언론들이 먼저 《탈북》사실을 내들려 주위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여기에 괴뢰 통일부대변인이요 뭐요 하는자들이 출몰이 나서서 《확인》이니, 《입국》이니 하고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확산되면서 내외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역시 지난 4월 중국 절강성 녕파에서 우리 주민 12명을 집단유괴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괴뢰국정원깡패들에 의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비열한 강제랍치행위이다.

우리는 괴뢰국정원깡패들이 중국 위남시의 평양선봉관에 근무하는 우리 종업원 2명을 유인랍치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신분을 위장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있다.

이번에 괴뢰국정원깡패들은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작전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들을 시장으로 유인하여 미리 대기시켰던

승용차에 태우고 꼬리를 사리었다. 놈들은 그들을 여러대의 차에 같이 태우면서 려권도 없이 불법으로 중국국경을 넘어 라오스를 거쳐 타이로 빼돌렸다가 서울로 끌고가는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 해당기관은 이번 유인랍치작전에 가담한자들의 신상과 범죄 경로를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자료들을 낱알이 장악하고있다.

괴뢰국정원깡패들이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각분을 짜고 실행한 이번 유인랍치만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최악에 최악을 덧씌우는 극악한 반인륜적범죄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최근 괴뢰패당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에 그늘을 지우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치떨리는 유인랍치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난 4월 녕파에서 우리 주민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어간 특대형랍치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유인랍치한 우리 주민들을 억류해놓고 온갖 회유기만과 위협공갈을 일삼고있으며 그들과의 대면을 요구하는 피해자가족들과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이번 유인랍치사건은 우리 주민들의 무조건적이며 안전한 송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저들의 반인륜적범죄를 가리워보려는것과도 직접적으로 련관되어 있다.

괴뢰패당이 이번 사건을 조작하자마자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자까지 나서서 《집단탈북》이니, 《해외근로자들의 어려움》이니 뭐니 하고 상투적인 악담을 곱씹어댄것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이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고 비난 여론의 화살을 만데로 돌려보려고 이번 유인랍치사건을 감행하였지만 천륜을 어기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백주에 치떨리는 유인랍치행위를 또다시 꺼리낌없이 감행한 추악한 정체를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이번 유인랍치행위는 괴뢰패당이 야말로 가장 극악무도한 인권범죄자이며 괴뢰치한 국제제로깡패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낱알이 고발해주고있다.

우리 천만국민은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유인랍치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괴뢰패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앞에 사죄하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랍치해가는 비열한 모든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끌어간 우리 인원모두를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주제 105(2016)년 6월 2일 평양

경거망동의 대가는 비참한 멸망

남조선의 호전당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에 모험적인 군사적망동으로 엇서고있다.

극도의 대결광기에 들떠 서해열점수역에서 선불질을 해댄 남조선호전당국은 얼마전에는 《참수작전》부대편성놀음이라는것을 벌여놓았다.

1개 러단구묘로 조직되는 특수부대는 일단 유사시 공화국의 수뇌부와 주요군사시설타격을 주요임무로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제대형 공격용직수기인 아파치를 특군에 새로 배치하는가 하면 잠수함탄도미사일개발 등 무력증강과 무기개발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에 매달리는 남조선호전당국의 망동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남조선호전당국이 도발소동을 계단식으로 강화하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는것은 절대로 스쳐보낼수 없다.

지금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으로 날로 약랄해지는 미국의 북침 핵전쟁기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면서 민족적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공화국이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을 위해 온갖 선의와 아량을 다 보이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다싶이 남조선호전세력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를 그 무슨 《핵포기》니, 《진정성》이니 하는 갖은 험담질로 모독하고 군사적도발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

통일지향에 도전한 동족대결 《토론회》

통일지향에 도전한 동족대결 《토론회》

얼마전 남조선에서 《2016 한반도통일토론회》라는 대결광대국이 한바탕 벌여졌다.

명색이 《통일토론회》이지 어중이떠중이들의 《북핵반대》, 반공화국

이라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남조선의 《연합뉴스》와 《공동주최》하였다는 이 《토론회》라

는데서 남조선당국자들과 그 무슨 《전문가》를 자처하는 떨거지들은 《현시점에서 우선은 북비핵화》니, 《제재 끝장리행》이니, 《한 나라의 리안보를 꾀하면서 또다시 오만과 독선을 일삼고있는 현 집권자와 그에 편승한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정치가 물아온것이다.

《국회법개정안》과 《국회》의 주요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은 남조선정치적 진면모와 함께 반역정적으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보수집권세력의 가련한 신세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놓은 자주통일로선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보내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동족대결의식이 팔수에 들어찬 남조선당국과 보수패거리들은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잃고 《지금엔 대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느니, 《북이 이야기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느니, 《북비핵화》니, 《제재와 압박》니, 《제재와 압박》을 목이 터져라 고야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호소와 평화애호적노력에 대한 내외의 지지여론을 가로막고 파멸에 처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는 역겨운 국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최근 공화국이 내

놓은 자주통일로선에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보내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동족대결의식이 팔수에 들어찬 남조선당국과 보수패거리들은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잃고 《지금엔 대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느니, 《북이 이야기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느니, 《북비핵화》니, 《제재와 압박》니, 《제재와 압박》을 목이 터져라 고야댔다.

이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적호소와 평화애호적노력에 대한 내외의 지지여론을 가로막고 파멸에 처한 저들의 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부지해보려는 역겨운 국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최근 공화국이 내

에게 도전하는 극단적인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공화국을 적으로 삼고 힘으로 타도하겠다는 것뿐이다.

남조선호전당국의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격의 무모한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미국에 군통수권마저 넘겨버치고 비굴하게 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잔명을 부지해가는 남조선호전세력들 따위는 사실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동족의 선의에 계속 대결로 엇서며 평화적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넘어갈수밖에 없다는것이 공화국의 단호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남조선호전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를 힘으로 어찌보려는 군사적모험에 끝끝내 매달린다면 그것은 무자비한 정의의 보복과 종국적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대립과 갈등으로 심해지는 통치위기

남조선에서 제20대 《국회》의 시작을 앞두고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심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여야가 《국회법개정안》문제와 제20대 《국회》의 주요자리를 놓고 매일같이 싸움만 벌리고있기때문이다.

우선 《국회법개정안》문제를 둘러싼 여야사이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은 사람들의 눈살만 찌프리게 하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19대 《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명 《상시청문회법》이라고도 하는 《국회법개정안》은 청문회실시대상을 특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뿐만 아니라 국한시켰던 기존 《국회법》과는 달리 실시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비롯한 광범한 사회적문제들을 취급하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문제들을 중시하지 않고 제기된 문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국회》의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의로 진행할수 있게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자 야당들은 새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어버이런합》과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의 불법정치개입사건, 민중총궐기집회참가자들의

식불명상대로 만든 경찰의 물대포사건, 광주민민봉기를 부정하는 당국의 《남을 위한 행진곡》제창반대 등 현 당국과 련결된 문제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공언해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한 현 당국자에게 있어서 《국회법개정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이로부터 현 집권자는 《국회법개정안》이 《국정》운영에 심각한 사태를 몰아온다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이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한 거부》라고 규탄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것을 다짐하고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세력들이 과반을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이 공조를 할 경우 《국회법개정안》은 막을수 없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임명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도 심상치 않다.

남조선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무

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많은 의석수를 획득한 원내 1당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게 관례라고 볼수 있다.

하여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할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 아니라 여당의 몫》이라며 《여소야대 구도를 떠나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정치분석가들은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야당들이 공조하면 패배할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현재 상임위원장자리문제에서 야당의 양보를 얻어내려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아울러 저들의 집권후반의 《국정운영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여당출신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한것으로 분석하고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권한을 리용하여 저들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야당을 견제하고 집권안정도 보장하는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여야간의 괴리치는 싸움을 지켜보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

회》의 재판이 될수 있다고 예측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정국혼란은 민심을 외면하고 짓밟으며 집권안보를 꾀하면서 또다시 오만과 독선을 일삼고있는 현 집권자와 그에 편승한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정치가 물아온것이다.

《국회법개정안》과 《국회》의 주요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의 대립과 갈등은 남조선정치적 진면모와 함께 반역정적으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보수집권세력의 가련한 신세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혼자 살라》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기준 1인가구는 506만가구로 전체의 27.1%에 달한다. 전체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최근엔 비자발적요인으로 1인가구가 된 사례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 1인가구는 2000년-2010년 년평균 6.8% 증가했다. 높은 청년실업률, 실질임금하락, 물가급등 등으로 경제적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이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지혜

(31살, 녀)의 사례를보자. 김씨는 매일 나가는 월세차 아까워 작은 전세아파트를 알아보고있으나 요즘 전세집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목돈을 마련하는것도 힘에 부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을 보고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여리웃의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녔지만 전세 구하는건 하늘의 별따기다. ...그나마 김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1인가구 주거비곤란율은 36%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청년 10명중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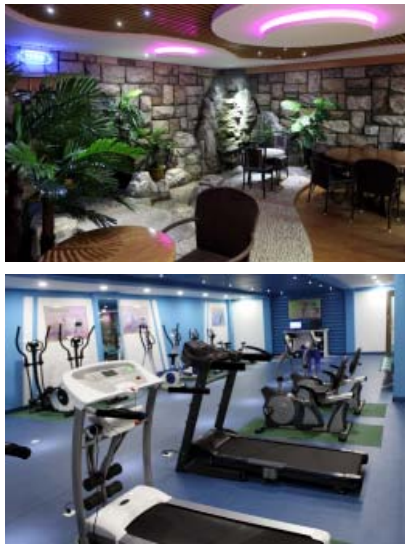
가까이가 최저주거기준을 넘지 못하는 곳이거나 주택이 아닌 곳, 즉 세아빠지를 알아보고있으나 요즘 전세집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목돈을 마련하는것도 힘에 부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을 보고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여리웃의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녔지만 전세 구하는건 하늘의 별따기다. ...그나마 김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1인가구 주거비곤란율은 36%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청년 10명중 4명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제도로 로출했다는 점이 다르다. 독거로인을 포함한 로년층 1인가구는 갈수록 이 많지 않다. 이들중 상당수는 퇴직후 재취업에 실패해 생활비부담에 시달리며 고립된채 살아간다. ...빈곤한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수 있다. 모든것이 국가의 일일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것이 개인의 일일수도 없다. ...

(남조선집지 《신동아》 2016년 5월 1일호에서 전재)

로동자들이 문명을 향유하는 공전

◆ 평양326전선공장 문명원을 찾아서 ◆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 가운데는 평양326전선공장의 문명원도 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얼마전 우리는 로동자들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후생시설인 문명원을 찾았다. 평평한 빛을 뿌리는 무리등이며 폭포를 형상한 대형벽화, 거울같이 알뜰알뜰한 마루바닥, 천년바위를 닮은 세워놓은듯 한 기둥을 비롯하여 훌륭한 문명원의 훌륭한 마치 궁전을 방불케 했다.

수영장, 목욕탕, 물놀이장, 리발실, 미용실이 있는 문명원의 1층 어디서나 기쁨과 향만에 넘친 로동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한층을 하고나서 수조에 뛰어드는 사람들, 시원한 덕수를 맞으며 회월에 넘쳐있는 사람들, 쉼씨있게

헤엄을 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지하층에서는 체력단련실에 설치된 건강물동발판, 허리운동기재, 걷기운동기재, 달리기운동기재에서 로동자들이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하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휴식방, 옥돌방, 소금황토방이 있는 한층방의 문을 여니 멋들어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푸르싱싱한 소나무며 단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폭포수에 취해 굳어져 버린듯 한 한쌍의 학과 거북기를 형상한 동물조각들, 수조에서 뛰노는 물고기들이며 벽체에 그려진 《소몰이군》과 같은 옛그림들... 옛말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서 로동자들이 장기와 윗놀이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립운육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옥돌방과 소금황토방은 신경통,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부인병치료 등에 효과가 좋아 로동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금방 한층을 하고나온 리옥향은 《지난 시기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했는데 이곳에서 한층을 하면 서부터 많이 나아지고 몸도 한결 거뜨해졌다.》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 만난 진근옥취사원의 말에 의하면 매일 로동자들에게 고기와 닭알, 물고기를 비롯한 영양제식을 보장하고있는데 혁신자들에게는 닭곰, 토끼곰과 같은 특식도 차려준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로동자들의 생산열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문명원에는 원격강의실과 과학기술보급실도 꾸려져있어 로동자들이 컴퓨터망을 통해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이름있는 교수, 박사들에게서 원격강의도 받고있었다.

건강을 되찾아줍니다

—리연옥 금연연구보급소 소장과 나눈 이야기—

풍치 아름다운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금연연구보급소로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아오고있다. 그들과 함께 보급소에 들어선 우리는 리연옥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금연연구보급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알고싶다.

리연옥: 우리 금연연구보급소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과의 상담과 효과적인 금연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다시말해서 담배의 해독성과 금연의 좋은점,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그 극복방법 등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금연수단들을 연구보급하고있다.

기자: 금연수단들에 대해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 기 바랍니다.

리연옥: 우리가 연구개발한 금연수단에는 금연영양알과 금연껌, 금연인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금연영양알은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매우 좋은 금연수단이다. 금연영양알은 인체내에 침체되어있는 니코틴을 해소시켜 담배맛을 잃게 함으로써 저절로 담배를 끊게 하고 담배피우기 전의 체질로 돌

아갈수 있게 하는 천연건강식품이다. 이 영양알은 화학제를 일체 쓰지 않고 순수 고려약재로 만들고 순수 고려약재로 만드었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고 보약으로도 쓸 수 있다.

사실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것은 니코틴에 인체가 중독되어있고 그 니코틴이 중추신경을 자극시켜 니코틴을 계속 요구하게 하기때문이다.

금연영양알은 피속의 니코틴을 해소시켜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혈액응고를 막아 뇌혈전예방이나 치료에 특효이다. 또한 폐에 쌓여있는 니코틴을 해소시킴으로써 기관지와 폐의 기능을 높여준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뿐 아니라 뇌혈전, 고혈압, 동맥경화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서도 금연영양알을 쓰는것이 좋다.

기자: 금연영양알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이 어떤지 알고싶다.

리연옥: 우리가 금연영양알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시작한것은 10여년 전부터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연영양알을 쓰고 담배를 끊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

은 하루에 2~3팩씩 피우던 담배고질이었었는데 금연영양알 2통을 먹고 끊었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으며 건강이 좋아진 다. 이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60살이 다 되어서까지 피우던 담배가 이 알약을 쓰면서부터 담배맛이 없어지고 냄새조차 싫어지니 정말 신기하게 느꼈다. 금연영양알이 야말로 건강을 되찾아주는 명약이다. 이 알약을 만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반영들을 꺾자면 끝이 없다. 지금 금연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금연영양알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계속 높아지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금연연구와 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다.



단편소설

불을 부르는 소리 (3)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어느해였던가. 정현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립하영은 별로 덩치도 않은 창리이며 가주들을 달도록 힘주어 닦고 또 닦았다. 언짢은 심정을 누르자니 별수 없었다.

(게임에 빠졌겠을까? 아니면 또 만화방일?...)

립하영은 파들파들앞으로 내딛는 벽시계의 초침에 신경질적인 눈초리를 언뜻 던졌다.

오후 5시 30분, 절제가 강한 립하영이 동료들과 한창 정구를 치고있어야 할 시간이다. 립하영에게 있어서 정구는 밥맛을 돌고 스트레스 해소나 하는 심심풀이 오락일수 없었다. 심심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운동인것만도 아니었다. 생존경쟁의 치열한 격투에서 거짓에 속히우지 않게 두눈을 부릅뜰 기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었다. 때론 문에 정구치기는 립하영이 필사의 각오로 립하영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긴적 없는 일과였다. 그런데 이 저녁엔 일과가 꺼여진것이다.

절적하고 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립하영은 걸레질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직이 물었다.

《어쩔 겠겠니?》
싱글거리며 집에 들어 서던 아들에는 그만 굳어졌다.

《과외공부...》
《아지도?!》
즉시에 립하영의 서리발이 선 반문이 날아갔다. 립하영은 분이 치밀었다. 간담이 서늘해졌던 종전의 일이 상기되면서 속이 후끈 달았다.

일이 있어 과외선생을 찾았던 립하영은 화제끝에 정현이 공부하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동유괴범들이며 폭력배가 란무하는 현실이 더 급히 정현이의 손전화번호로 호출신호를 보내었다. 다행히도 전화를 받은 아들이 천연스레 하는 말이 과외학습증이 려다.

립하영은 말없이 통화를 끊었다.

이제는 아들에게마저 속이려든다고 생각하니 기

가 막혔다. 배신감에 입술을 짓썬 립하영은 일찌감치 일정을 굶뵈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지금껏 정현이를 초달할 생각에 움혀있었던 것이다.

정구채를 꺼꾸로 잡아 쥐고 쓰아보는 어머니를 쳐다본 정현은 대뜸 주눅이 들었다. 그제야 과외 학습일정을 뚜꺼먹은 사실이 들장난것을 알아챘던것이다. 그는 어머니앞으로 주춤주춤 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래. 용돈 모은걸루 튜립 샀어, 엄마가 좋아하느니. 주변 꽃방엔 카네이션이...》

립하영은 속이 울컥하였다.

(어린 녀석이...)

하지만 양보할수는 없었다.

《누가 그런짓 하래? 말해봐. 엄마가 뭘 질색해?》

아들에는 울먹울먹하며 대답하였다.

《거-짓-말.》

《또?》
《우-는-거.》
《공부 잘해 큰사람되긴 틀린 자식! 엄만 용서 못해.》

립하영은 정구채손잡이로 탁자를 탕탕 두드렸다.

아들에는 고개를 떨구었다.

속을 도사려먹은 립하영은 아들에게 매를 안겼다. 아니, 약해지려는



자신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날밤, 립하영은 정신없이 품아떨어진 아들들걸로 갔다. 뺨건 줄이 간 허벅지에 악을 발라주며 한숨짓다가 《엄마-》 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숨을 죽였다. 흠칠 놀라며 바라보니 잠꼬대였다.

흔히 아버지가 혼을 내

면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가 꾸지람하면 아버지를 찾는것이 철부지들이 다. 약성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응석이라랄가.

그런데 아들에는 방금 분명 《엄마》라고 하였다. 어머니한테서 아픈매를 빌었던만 잠결에조차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의 모습은 립하영의 심금을 후려쳤다. 랭정의 보루는

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 다줄 마음으로 모든것을 다해오건만 한생 아버지라는 부름만은 줄수 없는 서글픔에 속으로 끝없이 용서를 빌며 살아왔다. 반쪽짜리 서글픈 사랑으로 아빠, 엄마의 응근 사랑을 대신하겠다고 모지름을 써온 자신이었다. 그런 부족한 엄마를 철부지가 헤아려 오하려 애투한 정으로 감추려 하였다. 그 가락한 마음이 타는듯 붉은 튜립 송이송이에 비껴 눈굽을 뜨끈하게 지웠다.

위선은 악종의 악이다. 그저 어질고 나약하면 속히우고 짓궂혀, 이걸 빼어 새기고 무췌쪽같이 지를 버려라, 열배, 스무배로 남을 압도하라. ...

이렇게 매일 매 시각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아들을 달구어온 립하영이었던만 누를길 없는 오열로 밤깊도록 몸부림쳤었다.

잊혀지지 않는 그밤의 아픔이 오늘로 이어질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차라리 보내지 않았더라면...)

립하영은 마치도 자기가 아들을 《침몰》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속으로 떠민것 같아 옥죄여드는 가슴을 부여안고 와들와들 떨었다.

알릴듯말듯 울리는 짙

은 호출음에 놀란 립하영은 손전화기에 불안스러운 눈길을 박았다. 아까부터 소식이 끊겼던 아들에게서 다시 통보문이 날아온것이다.

—살아서 돌아가게. 사랑해요, 엄모

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아들이 힘겹게 써보냈을 미완성단문들의 마디마디에 흐르는 애정으로 립하영은 가슴이 미어져왔다.

《약한 소리 말했잖아! 엄마 간다. 견더!》

립하영은 움켜쥔 손전화기에 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응답이 없었다. 그제야 방금 받은것이 통보문이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발신마저 다시 실패이어서 맥이 스크르 풀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시시결령한 소식들로 성가시게 이어지던 택시안의 방송이 별안간 전하는 놀라운 소식에 립하영은 귀를 의심하였다. 《(세월) 호승객 성과적으로 (전원구조), 사상 최대의 구조》라는 기적같은 소식이였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실낱같은 기대에 소원을 매달며 립하영은 두손 마주 쥐고 간절히 빌었다.

(기적이며, 내 아들을 살려다오. 빈다!)